

쓰레기와 살물죄(殺物罪)



박정은
배달녹색연합
출판홍보부장

1987년 뉴욕의 온갖 희한한 쓰레기를 가득 싣고 출발한 미국의 짐 배 'Mobro 2000호'는 쓰레기 버릴 곳을 찾아 여러 후진국 연안을 헤매다가 결국 각 나라에서 퇴짜를 맞고 국제 미아가 된 적이 있었다. 이것은 금세기 모든 나라의 쓰레기 처리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생생한 예이며 머나먼 남의 나라 아메리카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 현실일 수도 있다.

현대는 '마구버리는 사회'라 일컬어 마땅하다. 일회용 컵, 상품 포장지, 맥주 깡통, 빈병, 각종 전기제품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건들이 매일매일 엄청나게 버려지고 있다. 하기가 친구간의 사랑도 버리고 남녀간의 사랑도 버리고, 도리나 신의도 버리는 우리네 실정에 까짓 허접쓰레기 버리는 것 쯤 뭐 문제가 될까 하면 할 말은 없다.

그러나 한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쓰레기 종량제 원년 선포 후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머나먼 이야기로 느꼈던 사람들도 이제는 당장 자기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게 될테니 말이다. 이를 환경이기주의라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전 국가적으로 볼 때는 바람직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잘 알다시피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란 쓰레기 요금을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지불하는 제도이다. 이 종량제 실시로 인해 궁극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그리고 거두어지고 있는 몇가지 효과들을 보면 첫째, 쓰레기를 버리는 데도 돈이 든다는 인식을 심는 계기가 된다는 점이다. 물건을 사는 데 돈이 드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면 서도 쓰레기를 버리는 데에 돈이 든다는 사실은 의식하지 못했었다. 쓰레기 처리비용이 도대체 얼마가 드는지,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마지막에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로 인해 어떤 환경적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었다. 종량제 실시는 이런 생각에 썩기를 박고 각자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식을 심어주지 않았나 생각된다.

둘째,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했다는 점이다.



현대는 '마구 버리는 사회'라 일컬어 마땅하다. 일회용품, 포장지, 맥주깡통, 빈병, 각종 전기제품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건들이 매일매일 엄청나게 버려지고 있다.

쓰레기가 곧 돈이라는 생각은 쓰레기를 적게 배출하려는 동기를 준다. 이는 일반가정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보아도 경제적 이익은 엄청나다. 매립지 확보나 소각장 건설, 그리고 이들 시설의 운영 비까지 생각한다면 말이다.

셋째, 물건을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과정에서 쓰레기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주민들이 쓰레기를 적게 배출하는 상품을 선택하게 되면 이것은 결국 기업이 쓰레기를 덜 배출하는 물건을 만들도록 유도할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가 과대포장을 즐겨하는 기업의 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포장재 버리고 오기 운동'을 전개할 수도 있다. 자칫 쓰레기 처리비용 문제 때문에 백화점과 마찰을 일으킬 수도 있고 단지 가정에서 버려야 할 쓰레기를 백화점에서 버리는 쓰레기 배출장소 이전효과만 있다고 비난할 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업체로 하여금 쓰레기가 적게 배출되는 물건을 만들거나 판매하도록 자극을 주게 될 것이다.

또한 백화점은 업종별로 동류의 제품을 다량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분리수집이 가정보다 용이하고 경제적이다. 그리고 이렇게 모아진 포장재를 다시 생산업자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되돌아가는 빈 트럭에 싣고 간다면 그만큼 에너지 소비 또한 줄일 수 있고 생산업자는 포장재를 재활용할 수 있어 불필요한 자원을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

이외에도 종량제 실시는 지금까지 쓰레기를 단지 매립이나 소각과 같은 최종처리에만 관심을 가져왔던 시·군·구청의 쓰레기 관리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문제점도

없지 않다. 시·군·구청의 충분치 못한 재활용품 분리수거 대책 이라든가 중앙정부가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 쓰레기 감량화 대책을 충분히 수립하지 못했을 경우 주민에게만 쓰레기 감량의 책임을 떠맡기는 제도가 되기 쉽다는 점과 쓰레기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경향이 증가할 거라는 점이다.

이 외에도 많은 효과와 또 문제점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진정 중요한 것은 이런 제도 너머에 있지 않나 싶다. 소비에 대한, 물건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 자세 말이다.

우리 생활을
극도로
편하게 해주는
일회용품은
사서 쓰면서,
그저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하는
우유팩 모으기,
캔 모으기 정도로
스스로에게
“녹색면죄부”를
부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생활을 극도로 편하게 해주는 일회용품은 쓰는 대로 다 사서 쓰면서, 그리고 그저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하는 우유팩 모으기, 캔 모으기 정도로 스스로에게 ‘녹색면죄부’를 부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보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한 때 주부들 사이에서 붐처럼 일었던 우유갑 모으기를 보자.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유갑을 모으지 않고 쓰레기 통에 그냥 버리는 것이 화장지로 재생하는 일보다 지구 생태계에 더 이롭다고 한다. 실제로 주부들이 우유갑을 씻어서 말리고 묶어서 차량으로 운반하고, 거기서 우유갑 양면에 코팅되어 있는 비닐을 일일이 떼어내고 분쇄한 뒤 많은 물과 전기를 써서 재생화장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소모되고 결과적으로 적지 않은 양의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된다. 일회용 우유갑의 재활용이 교육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지구 환경보전에 도움은 안된다는 사실도 정확하게 알고 가르쳐야 할 것이다.

결국 우유갑은 어차피 일회용품이므로 아무리 열심히 모아 재생한다 해도 사후대책에 불과하다. 환경문제는 사후대책이 아닌 사전예방 차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재활용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사기 전에 선택구매하는, 그래서 ‘미리’ 생태계의 순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것을 프리사이클링(Precycling)이라고 하는데 이는 쓰레기의 발생량을 원칙적으로 줄이고 재활용의 효율을 높이며 이 쓰레기가 환경중에 방출되었을 때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것까지 소비자가 고려하는, 말하자면 일종의 ‘선택구매’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프리사이클링 개념을 일상생활에서 어렵지 않게 도입할 수 있다. 이를 테면 계란을 살 때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로 포장된

것보다는 골판지로 포장된 것을 선호한다든지, 가능하면 포장되지 않은 날제품을 구입하는 것이다. 꼭 포장된 제품을 사야 할 경우에는 포장용기가 작은 것을 선택하고 1회용 상품의 사용은 억제하는 것 등이다. 소비자들의



이러한 선택구매는 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자들의 사고방식을 변화시켜 상품의 생산에 있어 쓰레기 관리나 환경오염 문제를 염두에 두게 할 것이다.

현대 산업사회의 폭력적 대량생산체제는 오직 소비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차후 발생하는 환경오염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생산체제는 살인적 소비문화를 조장하기 마련이며 이는 곧 공해물질의 범람과 그로 인한 환경의 오염을 의미한다. 그 속에서 쓰레기 봉투 한 장에 몇 푼이나 된다고 하는 식의 사고방식, 이보다 조금 적극적인 행동양식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분리수거 등으로 녹색면죄부를 스스로 부여하는 것, 그런 삶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할 것이다. 쓰레기가 덜 나오는 물건을 선택구매하는 차원에서 검소한 삶의 양식을 선택하는 한 차원 높은, 그리고 본질적인 해결책으로의 발돋움 같은 것이 필요한 때이다.

우리 조상들은 물건을 함부로 쓰고 버리는 일은 '살몰죄(殺物罪)'라 이름하여 검소하게 사셨다. 낡은 참빗을 되매어 쓰고 깨어진 바가지를 무명실로 기워쓰며, 밥상 밑에 흘린 밥알 한 톨 때문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녀석에게 벼락같은 호통을 치고, 버려진 쇠통을 망태기에 담아와서 거름 밑에 쌓던 그런 삶이 체화되어 있었던 것이다. 물론 가난에서 비롯된 쓸쓸한 추억을 그대로 되살리고 물려주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검소하게 사셨던 것처럼, 요새말로 하면 그야말로 환경적으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의 자연이 바로 이러한 마음을 종량제라는 제도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이야기이다. ㉔

환경문제는 사후대책이 아닌 사전 예방차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재활용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사기 전에 선택구매하는, 그래서 '미리' 생태계의 순환에 적극 참여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